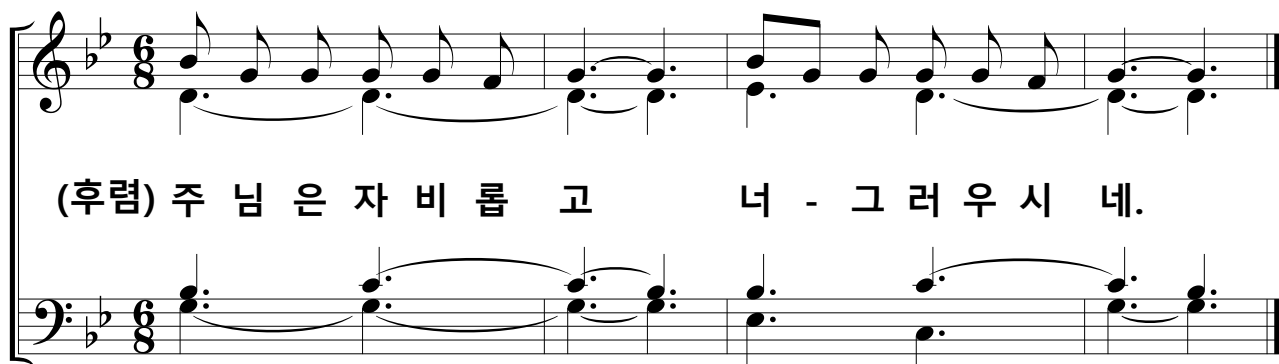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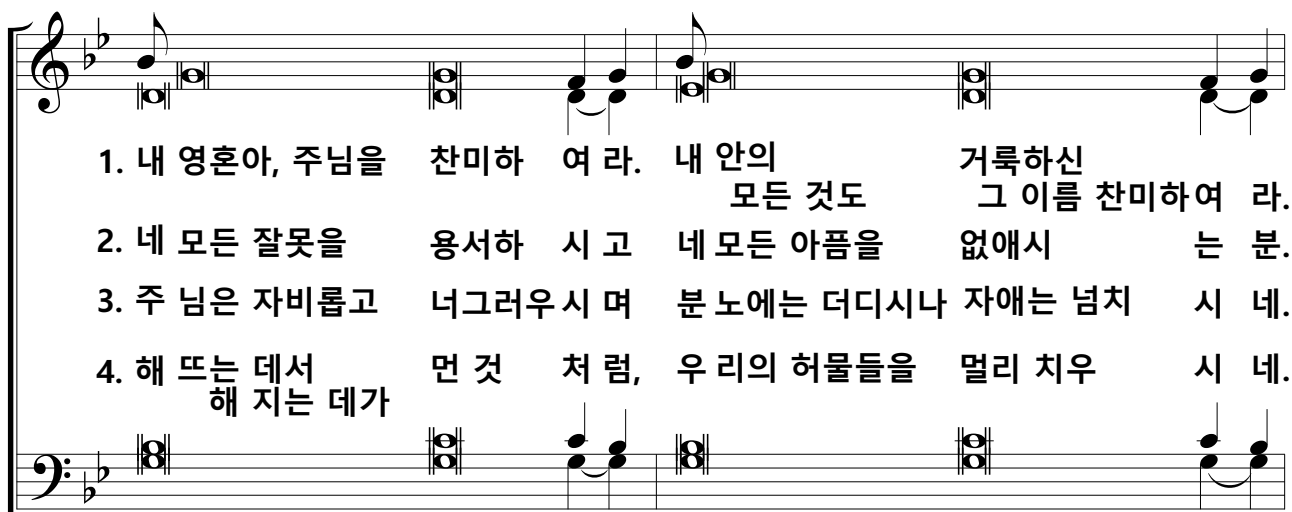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7 주일 화답송 [가해]

시편 103(102), 1- 2. 3- 4. 8과 10. 12- 13



(후렴) 주 님 은 자 비 록 고 너 - 그 러 우 시 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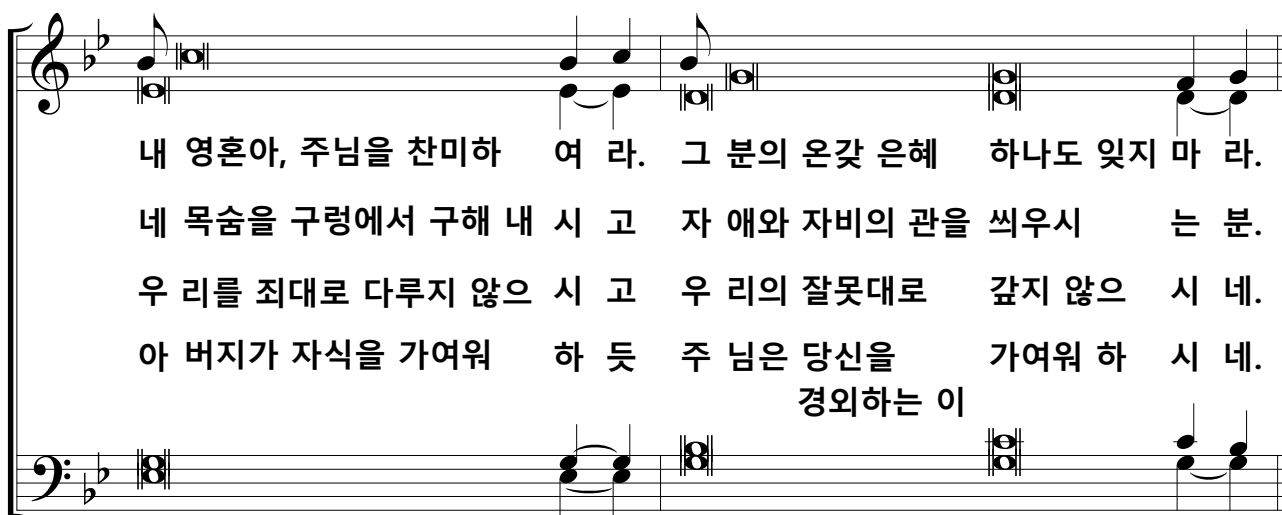
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여 라. 내 안의 거룩하신
모든 것도 그 이름 찬미하여 라.

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 시 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 는 분.

3. 주 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 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 시 네.

4. 해 뜨는 데서 먼 것 처 럼, 우리 허물들을 멀리 치우 시 네.
해 지는 데가

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여 라. 그 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 라.

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 시 고 자 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 는 분.

우 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 시 고 우 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 시 네.

아 버지가 자식을 가여워 하 듯 주 님은 당신을 가여워 하 시 네.
경외하는 이